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

손운락 (동국대학교)

[국문요약]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말의 힘과 설득의 원리를 연구한 『수사학』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연설에 의해 설득이 일어나는 현상 혹은 현실을 분석한 결과, 설득의 세 요소로 ‘내용의 논리(logos), 연사의 성격(ēthos), 그리고 청중의 감정(pathos)’을 들었다. 이 설득의 원리 가운데 감정의 요소는, 주로 청중의 감정만을 겨냥했던 시중의 연설에서와 달리, 다른 두 설득 요소와 함께 청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히 적용될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판단을 바꿀 수 있고, 결국 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을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의 변화를 통해 취해지는 유형의 판단을 장려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들에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언급들과 상충하며, 전체적으로 판단에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감안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인간의 몸과 감각, 그리고 감정에 대한 생각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의 『수사학』에 나타나는 감정과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1. 들어가는 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기원전 4세기 당시에도 이미 대중을 설득하는 연설 기술로 활용되고 있던 ‘레토리케’(rhetorikē)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기존의 것과 달리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레토리케 즉 수사학 이론을 펼쳤다. 기원전 5세기 초에 시작된 아테네의 민주정(dēmokratia)은 평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입법·사법·행정과 의례에 참여하는 체제로서, 민주정 하의 주권자인 시민은 의회나 법정이나 예식에서 공적 말하기의 연사이자 청중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존의 민주정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왕정도 귀족정도, 시민의 등급별로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금권정(timokratia)도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민주정이 나쁜 체제들 중에서는 참주정이나 과두정보다 낫다고 보았다. 그가 민주정을 반대한 이유가 교육받지 않은 다수가 국사를 이끌고 공직을 맡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데 있었기에(『정치학』 3.6, 1279a19, a28), 그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체제인 “politeia”(정체)는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아서 시민적인 덕(aretē)을 갖추고,¹⁾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이다.(『정치학』 4.11, 1295b 이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3권 9장에서 “국가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훌륭한 삶(euzēn)을 제공하는 것이다. [...] 명실상부한 국가라면 시민적 훌륭함(aretē politikē)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1280a31-1280b6)고 주장했다.

1) 그리스 철학에서 aretē는 사람의 지적인 혹은 성격적인 기능과 관련한 훌륭함을 의미한다. 이 말은 로마에서 용기를 의미하던 virtus라는 말에 전이되었고 후일 영어에서 virtue 개념이 된 것인데, 한국어로는 주로 ‘덕’으로 번역되었으나 최근 ‘탁월성’도 쓰인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외 번역(2006) 참조.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덕’으로, 그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에는 ‘훌륭함’으로 옮긴다.

그는 나아가 국가가 법으로 교육을 관장하고 신분과 재산에 무관하게 아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기본적인 교육(읽기·쓰기, 그리기, 체육, 음악)을 받게 해야 하며(8.3, 1337b23), 이렇게 모든 시민이 일정한 덕을 갖추고 서로 번갈아 통치자로서 지배하고 시민으로서 지배받는 체제를 추구한다(손운락 2012a, 154; 2015, 69). 이 체제에서는 시민의 공론장이 중요하며, 의회·법정·예식에서 레토리케가 유용하고, 그만큼 필요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연설문 작성이나 연설기술 습득이 목적이 아니고, 연설에서 대중이 설득된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각각의 경우에 ‘설득수단’(pistis)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몸과 감각, 그리고 감정에 관한 논의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불변의 이데아를 추구했던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경험과 감각지각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nes 2000), 92; 강상진 외 2016, 135). 아닌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물질적 사물들과 천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감각 자료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했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현실을 바탕으로 정치나 법률을 연구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말의 힘과 설득의 원리를 연구한 『수사학』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연설에 의해 설득이 일어나는 현상 혹은 현실을 분석한 결과, 설득의 세 요소로 ‘내용의 논리(logos), 연사의 성격(ēthos), 그리고 청중의 감정(pathos)’을 들었다(1.2, 1356a1-4). 이 설득의 원리 가운데 감정의 요소는, 그 이전의 주로 청중의 감정만을 겨냥한 ‘연설 기술’에서와 달리, 다른 설득 요소와 함께 청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히 적용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판단을 바꿀 수 있고, 결국 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을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의 변화를 통해 취해지는 유형의 판단을 장려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들에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언급들과 상충하며, 전체적으로 판단에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감안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인간의 몸과 감각, 그리고 감정에 대한 생각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의 『수사학』에 나타나는 감정과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2. 문제 제기: 설득수단으로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1권 1장에서 레토리케의 과업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주어진 설득수단을 발견하는 것”(1355b10)이며,²⁾ “각각의 경우에 가능한 설득수단(pithanon)을 알아보는 능력”(1.2, 1355b25)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수사학 강의의 목적이 연설 교사로서 학생에게 연설문 작성법이나 연설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로서 설득이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기제로서 ‘설득수단’을 탐구하는 학문적 접근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요소(pistis)를 기술(technē)과 무관한 것과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구분한다.³⁾ ‘기술 없는’ 것은 연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증인, 고문에

2) 만일 레토리케의 목적을 ‘설득하기’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소피스트나 연설문작가나 연설교사의 시각이 그랬다는 비판이지만, 이것이 현실의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할 것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테크네’(technē)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조

의한 증언, 계약서와 같이 이미 있는 것들로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기술 있는’ 것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것들로서 연구를 통해 발견해야 한다. 그가 ‘설득수단’(pithanon) 혹은 ‘설득 요소’(pistis)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술 있는’ 것(entechnon)들로서, 그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설득요소를 제시한다.

텍스트를 보자. “연설을 통해 제공되는 설득수단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그것은 연사의 성격(ēthos)이 어떠한가에 있고, 둘째, 그것은 청중을 어떤 감정(pathos)으로 놓는가에 있고, 셋째, 그것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혹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말(logos) 자체에 있다.”(1356a1-4) 이것이 위에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내용의 논리, 연사의 성격, 청중의 감정’으로 제시한 책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이어지는, 각 설득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인 ‘청중을 통한 설득’은 그들이 연설에 의해 어떤 감정 상태(pathos)로 이끌릴 때 일어난다고 말한다(1356a14).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가 ‘괴롭거나 기쁠 때, 또는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등 특정한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내린다는 사례를 든다. 감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서, 청중의 감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연사가 원하는 설득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명받고 있는데, 주로 ‘기예’로 번역된다. 6권 3장에서 인간의 영혼이 참을 인식하게 되는 성정(hexis)으로 기예(technē), 지식(epistēmē), 실천적 지혜(phronēsis), 지혜(sophia), 지성(nous)이 언급된다(1139b15-16). 테크네 논의에서는 우선 제작과 행위가 구분되며, 이성을 동반하는 실천적 성정과 이성을 동반하는 제작적 성정이 다름이 지적된다. 건축술(oikodomikē)은 일종의 테크네이며, 그것이 테크네인 한 이성을 동반해서(meta logou) 무언가를 제작할 수 있는 성정이다(1140a1-10). 우리가 『수사학』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크네인데, 로마 시대에 이것이 아르스(ars)로 번역되어 지식이나 학과 개념으로 정착되고 키케로가 현실적 지식보다 인간성(humanitas)을 추구하며 지성인을 기르는 지식들을 아울러 ‘artes liberales’라고 부른 것을 오늘날 우리가 ‘liberal arts, 자유 교양’으로 쓰고 있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대중의 설득에 관련한 경우이지만, 감정 변화에 의한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가 여기서 말하는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는 수사학의 객관적 기술을 적용한 ‘기술 있는’ 요소이므로 무작정 감정을 자극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고, 또한 그 자신이 “우리가 ‘요즘 연설 작가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만 몰두하려 든다’고 비판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지만(1356a17),⁴⁾ 문제는 있다. 감정에 호소한 결과 청중의 변화된 선택이 연사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텍스트에서 이러한 형태의 판단을 긍정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감정과 판단에 관련한 이론과 부합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여기서 감정에 해당하는 파토스(pathos)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다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감정들에 대해 말할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 해당 부분인 제2권 1-11장에는 간단한 개괄에 이어 개별 감정들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수사학』 2권 1장은 ‘청중을 통한 설득’을 위한 감정 분석에 앞선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감정의 변화를 통한 판단의 문제가 나타난다. “수사학은 판단(krisis)을 위해 있으므로 (사람들은 심의연설을 판단하고, 재판도 판단이니까), 연설이 증명적이고 믿을만하도록 연설에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연사 자신을 어떤 성질의 사람으로(poion tina) 만들고 또 판단자도 마련해야 한다.⁵⁾ 왜냐하면 설득과 관련하여

4) 앞서 1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은 어떻게 재판관을 어떤 마음상태로 만들지만 궁리하지, 기술 있는 설득수단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1354b20-22)고 비판한 바 있다.

5) 이 구절의 poion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가 ‘연사 자신’과 ‘판단자 청중’을 분

[...] 연사가 어떤 성질의 사람으로 보이는지, 또 그가 청중에 대해 어떤 마음상태에 있는지, 또한 청중이 어떤 마음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사안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화난 사람들과 평온한 사람들에게 같지 않고, 전혀 다르거나 크기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적게 지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정반대다.”(2.1, 1377b20-1378a3) 여기서 ‘포이온’(poio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이론에서 ‘어떠어떠함’ 즉 ‘성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poson)과 함께 실체를 규정하는 주요 속성을 의미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사에 대해서는 성격(ēthos)을 가리키고 청중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태 즉 감정(pathos)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⁶⁾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에 있어서 청중의 감정과 그들의 판단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인 청중에 있어서 그들이 처한 감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수사학』 2권 1장의 뒤이은 구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청중의 입장에서 겪는 감정의 변화를 통한 판단에 대해 언급한다. “감정(pathē)이란, 분노, 동정, 두려움과 그 반대되는 것들처럼, 그것을 통해 변화를 겪음으로써 사람들이 판단을 바꾸게 되고 (metaballontes diapherousi pros tas kriseis), 고통과 쾌락이 동반하는 것이다”(1378a19-22).

가버는 『수사학』 2권 1장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곳에 나타나는

리하여 전자는 연사의 성격으로, 후자는 청중의 감정으로 번역한다. W. Heinemann(1926), G. Kennedy(2007) 참조.

- 6) Cope의 주석에 따르면, 키틀리아누스는 여기서 to poion에 대해서 ēthos보다는 pathos를 말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정 연설의 경우 ēthos보다 청중의 pathos를 설득에 있어 더 우위에 놓았다는 것이다(Quintilianus, *Institutio Oratoria*, IV 5. 6). E. Cope(1877), 해당 부분 주석 참조.

감정(pathos)의 규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여타 텍스트에 나오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Garver 1994, 115).⁷⁾ 그는 이 정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형이상학』, 그리고 『영혼론』에 주어진 감정에 대한 설명과 너무나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 텍스트의 당면 문제에 관련한 감정의 정의가 틀림없다고 보았다.⁸⁾ 그는 이 정의는 다른 곳에 제시된 것들과 부합하지만, 다른 곳에는 ‘결정’의 아이디어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텍스트들에는 감정의 변화에 따른 결정 혹은 선택이라는 계기가 없다는 것이다. 가버는 『수사학』은 연설들(logoi)과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것인 반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영혼론』, 그리고 다른 학문적인 저작들은 진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간극을 다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화자가 청중에게 성공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면, 그는 단지 사람들이 감정들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만이 아니라,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사학』에서 제기되는 감정에 따른 판단의 변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에 나타나는 감정과 판단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감정에 관한 논의

흔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일컬어지며, 동양의 전통에서 인간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 일곱 가지 감정을 가진 존재로

7) 한석환(2015)의 연구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원문의 diapherousi를 직역하여 “차이가 생긴다.”라고 옮겼다(333).

8) Garver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맥락에 따라 다른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는 Leighton(1982)를 참조하도록 했다. 『영혼론』(peri psyches)의 제목은 우리말로 『영혼에 관하여』(유원기, 오지은)로 옮겨졌다.

이해된다. 감정의 종류나 가짓수는 다를 수 있으나,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감정들이 발동하게 되면 무릇 삼가야 한다는 가르침은 공통적이다. 감정에 휩쓸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에 대해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는 가르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3장에서 판단과 행위와 관련하여 나오는 감정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각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이것들에 대해 좋은 판단자(agathos kritēs)이다. 개별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판단자이며, 전 분야에 교육 받은 사람(peri pan pepaideuomenos)이 단적으로 좋은 판단자이다. 그런 까닭에 젊은이는 정치학에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다. 젊은이에게는 인생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정치학의 논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이는 자신의 감정들에(pathesin) 따르기 쉬워서 강의를 들어보아야 헛되고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⁹⁾ 정치학의 목적은 앎이 아니라 행위이니까. 또 그가 나이에 있어 젊은이이건 품성에 있어 풋내기이건 간에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모자람은 세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살며(kata pathos zēn) 무엇이든 그렇게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앎은 마치 ‘자제력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¹⁰⁾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9)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곳에서도 젊은이들이 감정에 따라 살기에 잘못을 저지르고 수치심으로 제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치의 감정은 [...]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감정에 따라 살기에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며, 바로 그 수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4.9, 1128b17-19).

10) ‘자제력 없음’(akrasia)의 문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서, 절제(sōphrosynē)는 3권 10장에서 주제적으로 다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자제력 있음, 즉 절제는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sōphrosynē(절제)

반면 이성에 따라(kata logon) 자신들의 욕구를 이끌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1.3, 1094b27-1095a10).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알아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좋은 판단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판단자이며, 모든 분야에 교육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단적으로 좋은 판단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젊은이는 정치학의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라는 말은, 젊은이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정치학의 영역인 사회 경험이 적은 데서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운 지식이나 이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감정에 따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텍스트는 이것이 나이의 문제가 아님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모자람은 세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살며 무엇이든 감정에 따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따르는 이들에게는 실천학의 배움이 큰 이득이 없겠으나, 반면에 이성에 따라 욕구를 이끌고 실행하는 이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이득을 준다는 것이다.¹¹⁾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행위와

가 phronēsis(실천적 지혜)를 sōzein(보존)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6.5, 1140b11),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절제의 덕은 즐거움과 관련한 중용인데(2.7, 1107b4-6),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몸의 쾌락에 특히 촉각에 적용되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 성애적인 것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무절제는 우리가 인간인 한에서가 아니라 동물인 한에서 갖는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3.10, 1117b28-1118b2).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가 이렇게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촉각이라는 감각이 작동하는 경우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예컨대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기쁨을 느끼거나 마땅한 방식이나 한도를 넘어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지나침도 무절제이며 비난받게 된다고 지적한다(1118b25).

11)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정치학, 윤리학 등 실천학 교육의 대상과 관련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따를 때가 아니라 이성에 따를 때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임을 읽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서 감정(pathos)의 위상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5장, 인간의 훌륭함 혹은 덕(aretē)에 관한 논의에 나타나는 구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pathos는 ‘당하다, 겪다’를 뜻하는 동사 paschein에서 온 명사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에서 ‘마음속에 겪어진 것’을 의미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5장에서 파토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즉 영혼의 계기들 중 하나로 그려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aretē)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파토스(pathos), 능력(dynamis), 성정(hexis)¹²⁾ 세 가지이므로 덕은 이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한다(2.5, 1105b20-2). 이어서 그는 “내가 말하는 파토스란 욕망, 분노, 두려움, 대담함, 시기, 기쁨, 우애, 증오, 갈망, 시기, 연민 등 일반적으로 쾌락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것들이다.”(1105b22-23)라고 하면서 개별 감정들을 열거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덕이나 악덕은 모두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덕과 악덕에 따라서이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1105b29-1106a2)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훌륭함)과 감정을 어떤 관계로 보았는지 알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이나 악덕 때문이지 그의 감정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예컨대,

문제들에 대해서는 손운락(2015) 참조.

-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서 hexis는 인간의 성격 혹은 품성(ēthos)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 강상진의 번역(2006)에서는 ‘품성상태’라고 번역했고, 한석환은 ‘성품’으로 옮겼으나(2015, 318), 성품은 성격이나 품성과 유사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성정’(性情)으로 옮겼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고 무조건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다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화를 냈다고 비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덕은 일종의 합리적 선택(prohairesis)이거나 그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런 선택 없이 느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여진다(kineisthai)’거나 어떤 특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keisthai)’는 것이다(1106a3-6). 이 구절에서 우리는 덕이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것인 데 반해 감정은 그런 선택 없이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에 관한 이론에서 중요한 구분임을 알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감정도 선택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덕의 일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앞서 본 『수사학』 2권 1장에서 “감정이란 그것을 통해 변화를 겪음으로써 사람들이 판단을 바꾸는 것”(1378a19-22)이라고 한 규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감정이 사람들의 판단을 이끄는 것, 즉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그 ‘감정’의 요소가 『수사학』의 중심 주제인 설득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기 때문에 두 텍스트의 차이는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감정은 우리의 자발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 없이 마음에 찾아와 우리가 그것에 따라 움직여지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구체적인 어떤 변화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덕의 성격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며, 감정을 주제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내가 말하는 파토스란...”이라는 방식으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그것이 감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한석환 2014, 319).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이나 『영혼론』에서도 감정에 대해 주제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에우데

모스 윤리학』에서는 “나는 감정으로 분노, 두려움, 염치, 욕망과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자체로 대부분의 경우 감각적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는 경향을 일컫는다.”(1220b12-14)라고 함으로써 감정의 정의 대신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5장과 같은 예시의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 감정의 종류나 가짓수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감정의 목록도 잠정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한편 『영혼론』 1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상태, 즉 파토스에 대해 그것이 영혼에만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몸에도 속하는 것인지 묻는다. 그리고 “영혼의 모든 상태들(pathē)도,¹³⁾ 예컨대 기개(thymos), 평온, 두려움, 연민, 대담함, 기쁨, 사랑과 증오도 몸과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들과 동시에 몸이 무언가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403a16-18)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인간의 감정이 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서 몸이 감각의 자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감정이 감각의 자리인 몸과 결합된 것임을 알게 된다(손병석 2014, 4).¹⁴⁾ 감각이 인식의 자료를 제공함에 도 올바른 판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잘못된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은 마음에 일어나는 ‘움직임’이지만 이성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에 놓이게 될 때 취하는 행위는 모두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 8장에는 정의와 자발성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감정에 따른 행위의 문제도 엿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서 행했지만 미리 숙고한 뒤

13) 403a16의 *ta tēs psychēs pathē*를 유원기(2001)는 ‘영혼의 영향받음’으로, 오지은(2018)은 ‘영혼의 속성들’로 옮겼다.

14) 필자와 같은 해석으로, 손병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에 관한 이론이 그의 존재론의 토대인 질료형상설에 바탕을 둔다는 것, 즉 인간이 몸과 영혼의 결합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의한 행동(adikēma)이다.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감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예이다.”(1135b20-22)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불쑥 찾아온 감정이 아니라 ‘숙고한 뒤의, 자발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 예컨대 ‘적절한 분노’는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¹⁵⁾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9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적인 덕(aretē)을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중용으로 결론지으면서, 실천의 문제를 언급한다. 그는 “덕이 이러한 것인 까닭은 감정과 행위 안에 있는 중간을 겨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기(orgisthēnai)란 누구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만큼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방식으로 (to d' hōi kai hoson kai hote kai hōi heneka kai hōs)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을 잘 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고귀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1109a27-29) 이렇게 보면, 분노라고 할지라도 ‘숙고를 거친’ 감정에 따른 행위라면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병석도 위와 같은 ‘마땅함’의 다섯 가지 원리에 따라 중용을 수행한 경우 분노는 칭찬의 대상이 되지만,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모자라게 느끼거나, 아예 분노하지 않는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손병석 2011, 41).

『수사학』 이외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작업의 마지막은 말을 통해서, 즉 실천학 강의를 통해서 덕을 갖추도록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이다. 앞서 젊은이들은

15) 손병석(2011, 38)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과 판단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분노가 단순한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욕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 분명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밝혔다.

실천학의 적절한 수강생이 아니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끝 부분인 10권 9장에 와서는 “말들은(logoi) 젊은이들 중 자유인다운 사람들을 돌이키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결한 성격, 고귀한 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성격의 젊은이들을 덕에 의해 사로잡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다중을(pollous) 고귀하고 선한 것(kalokagathia)으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중은 수치심이 아니라 두려움에 설복되게(peitharchein) 되어 있으며, 나쁜 것을 삼가는 것도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별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살면서(pathei zōntes) 그들의 고유한 즐거움과 그 즐거움이 생겨나게 될 수단들을 추구하며, 그와 반대되는 고통을 피한다”(1179b11-15).¹⁶⁾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다중’은 감정에 따라 살기에, 그들에게 고유한 쾌락과 그 수단들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기만 할 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서두에 그의 『수사학』에서 출발했을 때, 공적인 영역에서 대중을 설득하는 기제에 관한 그의 언급들을 보았고, 그 설득수단 가운데는 다름 아닌 ‘청중의 감정을 통한’ 방법이 있었다. 윤리학의 다중은 수사학의 청중과 다른 것인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수사학은 무언가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인가? 이제 『수사학』으로 돌아가 보자.

16) 여기서 ‘다중’(polloi)은 공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군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3권에서 일인 이든 소수이든 다중(polloi)이든 공동의 이익(koinon sympheron)을 위해 통치한다면 이러한 정제들은 올바른 것이며(1279a29), 다수(plēthos)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체제가 ‘politeia’라고 불린다(a38)고 함으로써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국사에 참여하는 시민 대중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제를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의 논의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타나는,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이라는 요소를 이해하고 청중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청중의 감정에 적용함으로써 청중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연사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선택을 이끌어내는, 그 기술(technē)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그가 주장하는 설득수단 가운데 ‘청중을 어떤 심리상태로 놓는 것’이라는 감정의 요소는 이전의 설득기술에서의 감정 부추김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주장은, 청중의 감정을 수사학 ‘기술’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분노(orgē)와 두려움(phobos), 호의(eunoia)와 연민(eleos) 같은 ‘감정’은 정치가이든 소피스트든 기존의 연설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설득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민주정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면 마치 ‘천둥이 치듯’ 마음을 뒤흔들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올림포스의 주인 제우스라는 뜻으로 “올림피오스”라고 불렀다고 한다.¹⁷⁾ 고대 그리스의 지식인으로서 고급 교육을 담당했고 연설 기술을 가르쳤던 소피스트들 가운데 트라쉬마코스는 청중의 감정과 연민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들을 묶은 책 『Eleoi』(연민)을 짓기도 했다.¹⁸⁾ 그래서 실제 연설에서 누구라도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호의를 불러일으키고, 종결부에서는 상대방을 향해 청중의 분노를 자극

17)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페리클레스’ 39.2. 또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아카르나이 사람들』에는 “그의 연설은 천둥과 같다.”거나 “그는 햇바닥 위에 설득의 여신 페이토가 있다.”(528-531행)는 구절이 나온다.

18)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3.1, 1404a14. 트라쉬마코스는 아테네의 소피스트인데 그의 작품 Eleoi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전저에만 유일하게 언급되는 저작이다(D. Zygmuntowicz 2019, 6).

하거나 연사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상투적이었던 것이다(한석환 2015, 300).

연설에서 청중의 감정을 활용하는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크게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그는 레토리케를 ‘기술’(technē) 혹은 학문으로 승화시켰으며, 기존의 연설교사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했고 그것의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은 설득(pistis)의 몸통인 엔튀메마(entymēma)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사안을 벗어난 것들만 주로 다루었다.”(1.1, 1354a11-18)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레토리케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그가 『수사학』의 첫머리에서 “수사학은 변증법에 상응한다(antistrophos)”¹⁹⁾고 함으로써 수사학(rhētorikē)에 대해 지

19) 일찍이 키케로가 지적한 것처럼(*De oratore* 32.114), ‘antistrophos’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형식에서 온 것이다. 배우들의 대사로 이루어진 이야기인 막(epeisodion)이 하나 끝나면 코로스가 동일한 운율의 두 절로 이루어진 노래 정립가(stasimon)를 부르는데 1절을 strophē(회전), 그에 상응하는 2절을 antistrophē(반전)라고 한다. antistrophos는 이를 염두에 둔 말로서, 짝, 쌍 등의 명사로 옮기기보다 형용사를 살려서 ‘상응한다, 맞먹는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수사학은 변증법에 상응한다.”라는 말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수사학과 변증법 둘 다 탐구 영역이 특정된 학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관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변증법은 학문방법론의 다른 이름이므로, 변증법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론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처럼 수사학도 그만한 가치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실천 영역에 적용되는 학문이라는 의미가 된다. Cf. 플라톤,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요리술이 몸에서 연설술의 antistrophos이듯, 연설술은 영혼에서 요리술의 antistrophos이다.”라고 말한다(465d-e). 여기서 요리술은 기술로 보이나 (허만 달콤한) 유사기술이며 몸에서의 진짜 기술은 의학이다. 또 수사학은 사법(dikaiosynē)의 그림자에 불과한 유사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부정적 의미로 썼던 antistrophos를 『수사학』의 첫 마디로 쓴 것이며, 수사학이 학문의 지존인 변증법(dialektikē)에 맞먹는다고 선포한 것이다.

혜를 다루는 철학의 방법론인 변증법(dialektikē)에 맞먹는 학문적 지위를 주장하고 나선 데서 볼 수 있다. 이전의 연설가들이 의존했던 청중의 감정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오직 ‘설득수단’만이 기술에 속하며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 기술에 입각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새로운 레토리케에 따르면, 연사는 연사 자신의 성격(ēthos)이나 청중의 감정(pathos)요소를 ‘기술에 의거해서’ 적절히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론과 증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학 강의에서 ‘추론과 증명’을 기술로서 논하는 것은 당시에는 생소했을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변증법에 맞먹는” 것이라고 선포한 만큼, 그는 수사학이 변증법(dialektikē)이 사용하는 논리학과 관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설에서 추론과 증명을 다루는 논리학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는 연역추론(syllogismos)을 쓰되 그대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변형된 ‘엔튀메마’(enthymēma)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설득수단 즉 기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학』의 서두에서 “설득의 몸통”이라고 불렀던 ‘엔튀메마’는, 우리말로 ‘수사추론’이라고 옮길 수 있겠는데, 수사추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형태인 점에서 연역추론과 같으나, “그 나름의 이유로 모든 요소가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어쨌든 식별할 수 있는 삼단논법의 구조”를 갖고 있다(Sprute 1982, 69; 한석환 2015, 159). 그런데 수사학은 엄밀한 진리를 추구하는 논리학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가변적인 실천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기술이며, 수사추론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형식의 추론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축소되거나 변형된 형태라 하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청중에게 더 강력한 논리의 각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설득수단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 수사적 추론과 증명이다. 이것이 1권 1장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 논의의 시작을 열었던 『수사학』 1권 2장에서 감정이 논리, 성격과 함께 설득수단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을 보았다. 앞서 본 2권 1장에서도 감정은 ‘그것을 통해 변화함으로써 사람들이 판단을 바꾸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청자의 감정 자극이 강력한 기술적 설득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2권 2-11장에서는 개별 감정들이 하나씩 상술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2권 2장에서 분노(orgē)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장까지 평온(praotēs), 우애(philia)와 증오(misos), 두려움(phobos)와 안심, 수치심(aischynē), 호의(charis), 연민(eleos), 분개(nemesan), 시기(phtonos), 그리고 경쟁심(zēlos)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이어간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개별 감정에 대한 상술을 시작하기 전에, 2권 1장의 ‘감정’ 규정에 뒤이은 마지막 구절에서 감정을 탐구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분노(orgē)에 대해 말하자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pōs diakeimenoi), ‘어떤 사람들에게’(tisin), ‘어떤 일로’(epi poiois) 화를 내는지를 구분하고, 그 셋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2.1, 1378a23-28). 이 구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맥락에서 감정을 통한 설득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지만 텍스트에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²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감정과 판단에 대한 논의는 더 큰 문제, 즉 근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

20)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Fortenbaugh(1975), Sherman(1993), Nussbaum(1996), 손병석(2011, 2014), 한석환(2015), 김윤희(2015, 2016), 장영란(2018) 등에서 볼 수 있다.

서 출발하는데, 대체로 두 갈래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감정은 감각(aisthēsis)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정은 몸을 통해 일어나는 일종의 수동적인 운동(kinesis)인데(『영혼론』 1.4, 408b1-10), 이 운동들은 대상으로부터 영혼에까지 이르는 감각작용 과정과 다시 영혼으로부터 감각기관들로 가는 상기(anamnēsis) 과정으로 나뉜다(『영혼론』 408b14-18). 전자는 감각이 대상을 질료 없이 받아들인 ‘감각적 형상들’(aisthēta eidē)로부터 몸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영혼론』 424a17-24), 후자는 이 감각적 형상들이 영혼 속에 기억으로 보존되어 있다가 다시 감각기관들에 재생되는 것이다(「기억과 상기」 451b11-16). 감정을 이러한 과정들로 본다면, 특정 감정은 감각작용을 통해 어떤 감각적 형상을 수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거나 그 감각적 형상이 영혼 안에 보존되어 있다가 감각에 재생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된다. 감정을 이렇게 몸의 감각과 관련한 생리적 변화 과정으로 본다면 이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파토스 개념이 가지는 수동적인 맥락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몸의 변화가 어떻게 특정 감정으로 규정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Sherman 1993, 9; 손병석 2014, 6). 더구나 이러한 감정은 동물적인 감정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감정은 몸을 통한 영혼의 변화이면서도 인간에게 고유한 인식이나 지성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다음으로, 감정은 믿음(pistis)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인간의 감정은 동물의 그것과 달리 믿음이나 의견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입장에서 감정은 맹목적인 동물적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이고 구별되는 부분’의 발현이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믿음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으며, 믿음의 수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Nussbaum 1996, 303). 포텐바우 또한 같은 입장에서 감정이 비합리적인 동물적 힘이 아니라 이성적인 설득이 가능한 지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감정은 이성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Fortenbaugh 1975, 17).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에 대해 인지적 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감정은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힘들이 아니고, 이성적인 설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며, 따라서 감정은 믿음이나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손병석 2014, 7). 이러한 인지적 해석은 감정과 판단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논의에서 감정을 순전히 수동적인 변화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숙고와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해석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한석환은 『수사학』 2권 1장에 나오는 이 ‘감정의 세 계기’로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상대 인물, 이유 등을 제시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소기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여기서 상대 인물과 이유는 서로 겹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의 오만함으로 인해 분노했다면, 즉 상대 인물이 오만해서 분노를 일으켰다면, 이때 분노의 상대 인물에 대한 설명은 분노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한석환 2015, 334). 간단히 말하면, 감정의 발생은 나의 심리적 상태와 상대의 유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도가 텍스트의 이 구절 이후에 이어지는 개별 감정들의 분석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석환은 여기서 기술적 감정 자극의 핵심은 청자로 하여금 특정한 의견을 품도록, 예컨대 ‘A에게 억울한 불행이 닥쳤다’고 상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 청자에게 해당 감정을, 예컨대 A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한석환 2015, 335).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기본적인 설득요소(pistis) 가운데 하나인, 청중의 감정 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기술은 청중에게 특정 감정을 강제로 덮어씌우거나 공포심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특정한 의견을 구성함으로써 숙고된 의견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일정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수사학에서 감정이라는 설득요소는 청중의 감정이 일정한 의견과 판단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논의에 중요한 길을 열어준다. 김윤희의 연구 또한 『수사학』 2권의 1장의 이 구절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의 영역에 인지성을 개입시킴으로써 감정을 권유와 만류가 가능한 설득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었다”고 하면서(김윤희 2016, 6), 이를 감정 자극을 통한 설득의 ‘인지주의적 기초’라고 불렀다(김윤희 2015, 106). 이것은 앞에서 본 손병석의 해석과도 같은 시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청중의 감정을 통한 설득이 인식과 판단을 통한 감정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해석은 우리가 이 논의에서 포착한 감정과 판단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서, 숙고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감정을 유발이라는 해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수단에서 감정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연설에서 감정을 통해 청중의 판단을 바꾸도록 하는 문제는, 언뜻 보기에 『수사학』 안에서 1권 1장의 이론과 나머지 부분의 설득수단 이론에서 감정의 요소에 대해 물을 때에도 불일치를 보여주었지만,²¹⁾ 앞에서 우

21) 『수사학』은 대체로 1권 1장이 더 이른 시기에 집필된 것으로 간주되며, 일부 학자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비판했던 초기의 플라톤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Fortenbaugh(1986), 248. 『수사학』 1권 1장을 이

리가 제기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들에 나오는 인간의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언급들과 비교해볼 때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우선 『수사학』 안에서 1권 1장과 나머지 부분의 단절 혹은 차이의 문제는 텍스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권 1장에서 이전의 연설가들에 대해 그들이 사안 자체가 아니라 ‘비방, 연민, 분노’와 같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비판하고(1354a16) 설득을 위한 ‘엔튀메마’를 강조하고 있지만(1355a5-8),²²⁾ 이 ‘논리적인 것’을 유일한 설득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권 1장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을 내세우면서, 기존 연설가들의 습관적 지평을 뒤집는 맥락에서 수사학 기술의 증명적인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1권 2장 이하의 ‘논리, 감정, 성격’이라는 세 가지 설득수단 논의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권 1장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사안을 벗어난 것들’을 다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권 2장과 2권 1장에 나오는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에 따라 감정을 자극하고 그에 따라 청중의 판단을 바꾸도록 한다면, 그것은 사안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인가? (한석환 2015, 307) 텍스트를 보면, 『수사학』 1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전의 연설교사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설득(pistis)의 몸통인’ 엔튀메마’는 말하지 않고 사안을 벗어난 것들만’ 즉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 다루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으로 아리스토

른 시기의 것으로 분리하는 ‘발전사적’ 해석으로는 Solmsen(1929), 221, Göhlke(1959), 242 등을, 전체를 단일한 텍스트로 보는 해석으로는 Rapp(2002) II, 114, 한석환(2015), 303 등을 참조할 것. 전체적으로는 Barnes(1995), 262 참조.

22) “설득은 일종의 증명이다. [...] 그리고 수사학적 증명은 엔튀메마이고, 엔튀메마는 일종의 추론이다.”

텔레스가 강조하려는 것은 주어진 사안의 핵심인 ‘엔튀메마’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즉, 그는 설득수단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의 핵심을 잊고서 감정에만 호소하는 낡은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설교사들의 낡은 방식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수사학에서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1권 1장에서 ‘사안을 벗어나지 말고 사안의 핵심인 ‘엔튀메마’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설술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사안 중심’의 설득이론을 펼친 것이고, 1권 2장에서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설득이 ‘사안’에 관련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연사’에 따라서도 또 ‘청중’에 따라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설득수단으로 청중의 감정을 채택했다고 해서 1권 1장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일을 비판했던 것을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석환의 연구에 따르면, 연사나 청중에 따른 방법이 사안을 벗어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의 법질서’ 하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한석환 2015, 310).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재판관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데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만일 모든 판결들이 오늘날의 몇몇 국가들에서, 특히 잘 통치되고 있는 국가들에서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법이 그렇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사안에서 벗어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1354a18-24)라고 했다. 이상적인 법질서 하에서는 감정 호소에 몰두하는 방식이 금지될 것이고, 그러면 옛날식의 설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의 미비한 법질서 하에서는 감정 자극이 유용하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3권 1장에서 “옳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

이라고 한 말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3.1, 1404a2-3).²³⁾

그런데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의 역할을 보면 부정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지도 않는다. 감정 요소의 역할은 사안 중심의 설득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 감정 요소 자체가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옛날의 감정 자극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감정 요소 간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앞서 말한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면, 옛날 방식의 감정 자극은 ‘기술 없는’ 것인 반면, 자신의 감정 요소는 ‘기술 있는’ 것(entechnon)이라는 것이다. 『수사학』 1권 2장에서 기술 없는 것은 “우리를 통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기술 있는 것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마련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2, 1355b36-39). 전자는 설득요소가 우리의 연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것이 연설을 통해 비로소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 없는 것은 가져다 사용하면 되지만, 기술 있는 것은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은 경험이나 습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며, 학문으로서의 수사학인 것이다.

이제 본론의 끝으로, 『수사학』 1권 2장과 2권 1장의 설득수단으로서 ‘현실의 범질서 하에서 그 유용성으로 인해 여전히 채택할 만한’ 것으로 이해되는 이 감정 요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되는 그 감정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을 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채택했음에도 분노하고 슬퍼하고 욕망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23)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연기’(hypokrisis)에 관한 기술은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식 근거로 삼지 않음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보다 감정이 덕의 특성인 합리적인 선택(prohairesis) 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온다는 것도 보았다. 이제 『수사학』에서도 옛날식의 ‘감정 자극’의 경우라면 감정은 사실의 판단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곳[재판연설]의 판단은 남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재판관인] 청중은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고 편파적으로 청취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빠져 있을 뿐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재판관의 감정에 호소할 때, 감정에 휘둘린 재판관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설득수단에 따른 감정 요소는 어떻게 작동하며, 그 가치는 옛날식 감정 자극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판단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슬플 때와 기쁠 때,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1.2, 1356a15-16) 또한 “사안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화난 사람들과 평온한 사람들에게 같지 않고, 전혀 다르거나 크기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2.1, 1377b31-1378a1) 그리고 우리가 앞서 『수사학』의 주된 전거로 삼았던 것인데, “감정은 분노, 연민, 두려움 등과 그 반대되는 것들처럼, 그것을 통해 변화함으로써 사람들이 판단을 바꾸게 되는 것이며, 고통과 쾌락이 따른다.”(1378a19-21)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의 ‘감정 자극’이 청중의 관심을 사안 밖으로 돌려놓아 판단을 방해하는 데 비해, 자신의 설득수단에 따른 감정 요소는 청중의 판단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즉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설득을 이루어내는 데 작용한다고 주장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가 앞서 『수사학』의 설득수단인 이 감정 요소가 ‘청중의 판단을 변화시킨다’는 구절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들에서 감정에 대한 이론과 상충한다고 본 그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에서 감정은 그 수동성으로 인해 합리적 선택과 무관하고 그래서 훌륭한 인식이나 판단과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불쑥 찾아온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숙고한 뒤의, 자발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 예컨대 ‘적절한 분노’는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9장을 근거로(1109a27-29), 분노라고 할지라도 ‘숙고를 거친’ 감정에 따른 행위라면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수사학』에서 설득수단인 이 감정 요소가 ‘청중의 판단을 변화시킨다’는 구절을 긍정적인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중에게 일어나는 이 ‘판단의 변화’가 자발적인 선택(prohairesis)의 결과이냐의 문제이다. 만일 연사가 주어진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엔튀메마’를 마련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사람됨을 연설 속에서 제시하고 청중의 감정에 공감하는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선택한 그런 판단이라면, 그 판단을 이끌어낸 연설은 훌륭한 연설이며, 그 안에 설득수단으로 활용된 감정 요소는 정당한 것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가버(1994)가 『수사학』에서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에는 감정과 관련해서 ‘결정’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학』에 나타나는 감정 변화에 따른 설득이 예외적인 것이라

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 이론에서 감정이 일반적으로 결정 혹은 선택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9장 등에서 언급되는 ‘분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올바른 판단에 근거한 감정 표현은 훌륭한 행위로 칭찬받는다라는 점을 밝혔다. 한석환의 연구도 특정 감정이 판단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수사학』에는 얻을 것이 없다고 보았으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영혼론』에서 감정이 판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학』의 범위를 넘어가는 작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석환 2015, 352). 그러나 한석환은 앞선 연구에서도 또 최근 수사학 2권 2장에 전개된 분노의 감정에 대한 상술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분노라는 감정의 특성을 믿음과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한석환 2015, 332), 말하자면 ‘분노의 바탕에 모종의 믿음이 깔려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한석환 2017, 309, 316). 이제 우리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훌륭한 분노’의 사례와 함께 『수사학』에 나오는 분노의 감정이 믿음과 판단에 근거한다는 맥락으로부터 우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영혼론』,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등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에 대해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으로 언급했는데, 특히 『니코마코스 윤리학』 6권 3장에서 참된 인식을 이루는 다섯 가지 성정(hexis)의 목록에 감각도 감정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훌륭함 혹은 덕은 합리적 선택(prohairesis)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감정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인식에서의 훌륭함 즉 참된 인식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9장 등에 나오는 ‘분노’의 경우를 연결고리로 해서 다시 읽어보면, 『수사학』에서도, 물론 저 인식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되, 연사가 다른 설득수단과 함께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기술을 제대로 적용했을 때, 청중이 감정을 통해 변함으로써 판단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에서 감정과 판단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청중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 그 판단을 이끌어낸 연설은 훌륭한 연설이며, 그 안에 설득수단으로 활용된 감정 요소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한 하나의 반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데, 바로 다중(polloi)과 같이 청중이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휩쓸리는 경우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 1179b11-15). 앞에서 본 것처럼, 다중은 말들 혹은 논리(logoi)를 통해서 고귀하고 선한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 사례이자 감정과 판단의 문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중은 수치심이 아니라 두려움에 설복되게(peitharchein) 된다고 했으니, 이들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고 이들의 행위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성의 최소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심도 없고, 마음이 두려움에 지배당한 상태로 움직여서(kinoumenoi)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며, 결국 그들의 행동은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응에 불과한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수사학이 실천학의 영역에 두루 적용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부각됨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바탕으로 윤리학, 정치학 등 실천학 교육의 목적이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이 교육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좋은 시민이 되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폴리스의 다양한 공적 영역들에 참여할 때, 이 교육은 그가 훌륭한 연사로서 만이 아니라 좋은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연사도 훌륭해야

하지만 청중도 훌륭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요구하는 ‘시민’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좋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번역]

아리스토텔레스(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길.

_____ (2017), 『수사학/시학』(천병희 옮김), 숲.

_____ (2010), 「아카르나이 구역민들」, 『희극 전집 1』(천병희 옮김), 숲.

_____ (2012), 『에우데모스 윤리학』(송유례 옮김), 한길사.

_____ (2018), 『영혼에 관하여』(오지은 옮김), 아카넷.

_____ (2001), 『영혼에 관하여』(유원기 옮김), 궁리.

_____ (2017), 『정치학』(김재홍 옮김), 길.

_____ (2009), 『정치학』(천병희 옮김), 숲.

키케로(2006), 『수사학(말하기의 규칙과 세계)』(안재원 옮김), 길.

플라톤(2021), 『고르기아스』(김인곤 옮김), 아카넷.

플루타르코스(2010), 『영웅전』(천병희 옮김), 숲.

[연구서 및 논문]

강상진 외(2016), 『서양고대철학 2』, 길.

김윤희(2015),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 자극을 통한 설득과 그 인지주의적 기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2.

_____ (2016), 「아리스토텔레스의 파토스적 설득의 실현 기반」, 『수사학』 27, 5-32.

손병석(2011), 「분노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93, 31-60.

- _____(2014), 「감정은 능동적일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파테(pathē)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을 통해」, 『범한철학』 73(2), 1-30.
- 손윤락(2012a),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국가와 시민 교육」, 『서양고전학연구』 48, 149-174.
- _____(2012b),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성격과 덕 교육」, 『수사학』 17, 73-96.
- _____(2015),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교육과 그 대상의 문제」, 『서양고전학연구』 54(1), 65-86
- 장영란(2018),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의 적절성 문제와 일리아스의 사례」, 『문화와 융합』 40(4), 1-32.
- 한석환(2015),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연구』, 서광사.
- _____(201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 2장의 분노 규정과 그에 반영된 그의 감정이해」, 『수사학』 29, 299-321.
- Barnes, J. ed.(1995),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istot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2000, 1982(1)), *A Very Short Introduction to Aristot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oper, J. M.(1996), “An Aristotelian Theory of the Emotions”, *Essays on Aristotle's Rhetoric*, A. O. Rorty (e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38-257.
- Cope, E. M.(1877), *Commentary on the Rhetoric of Aristot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tenbaugh, W. W.(1986), “Aristotle's Platonic Attitude toward Delivery”, in *Philosophy and Rhetoric* 19, 242-254.
- _____(2002), *Aristotle on Emotion*, London: Duckworth.
- Garver, E.(1994), *Aristotle's Rhetoric, An Art of Characte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Heinemann, W.(1926), *Aristotle. Rhetoric*, translation, in Loeb Library,

-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 Kennedy, G. A.(2007),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ighton, S. R.(1982), “Aristotle and the Emotions”, in *Phronesis* 27, 144-174. Repr. in *Essays on Aristotle’s Rhetoric*, A. O. Rorty(e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6, 206-237.
- Nussbaum, M.(1996), “Aristotle on Emotion and Rational Persuasion”, *Essays on Aristotle’s Rhetoric*, A. O. Rorty (e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303-323.
- Rapp, Ch.(2002). “Aristotle – Rhetoric”,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eb 2010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entries/aristotle-rhetoric/>
- Sherman, N.(1993), “The Role of Emotions in Aristotelian Virtue”,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Vol. 9, 1-33.
- Solmsen, F.(1929), *Die Entwicklung der aristotelischen Logik und Rhetorik*, Berlin: Weidmann.
- Sprute, J.(1982), *Die Enthymemetheorie der aristotelischen Rhetorik*,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Zygmuntowicz D.(2019), “Thrasymachus of Chalcedon on the Platonic stage”, in *Journal of Ancient Philosophy* 13(1), 1-39.

[Abstract]

Emotion and Judgement in Aristotle's *Rhetoric*

Sohn, Yunrak (Dongguk Univ.)

In his *Rhetoric*, which studies the power of words and the principle of persuasion in a society that moves people, Aristotle analyzes the phenomenon or reality of persuasion by speech in the public domain, counts as three elements of persuasion the speech itself (logos), the speaker's character (ēthos), and the audience's emotions (pathos).

In this persuasion elements, the emotion can change the judgment in their minds when properly applied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the audience together with other persuasion elements. And, in the end, it means that the speaker can persuade the audience in the way he wants. It may then be thought of as encouraging the judgment of these patterns, chosen through the change of emotions. However, this idea conflicts with the references to the emotions in other works of Aristotle, and it is difficult to accept considering Aristotle's theory of judgment as a whole. This thesis will show that Aristotle's philosophy has to figure out the thoughts on the human body, senses, and emotions, and then decide how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emotion and judgment appearing in his *Rhetoric*.

주제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연설, 설득, 감정(파토스), 판단

Key Words: Aristotle's *Rhetoric*, speech, persuasion, emotion(pathos), judgment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7일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0일

손윤락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이메일: sohnfr@daum.net